청양 광덕사, 10회째 孝 잔치 열어

10년간 매주 국수공양도



청양 광덕사(주지 청봉)는 10월 25일 청양 구기자약초시장에서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해 '참봉사 동심원 효 큰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올해로 10회째 개최하고 있는 이번 경로잔치는 어르신들을 위한 흥겨운 공연과 더불어 무료 대중공양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청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양에 모친이 계셔서 내 부모를 모시듯 시장을 찾는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정성껏 마련한 공양을 맛있게 드시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로잔치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청봉 스님의 효심에 감동했다. 오랜 세월 동안 재미난 잔치를 열어줘 고맙다"며 "그래서 일부러 스님이 국수공양을 할 때 장 보러 나온다"고 말했다.

청봉 스님은 지난 10년 동안 매주 목요일 청양시장서 국수를 무료로 대접하고 있다. 특히 대웅전이 화재로 소실돼 천막으로 임시 법당을 운영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수공양은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증심사, 템플스테이 문화관 개관

시민선방 · 명상체험 운영계획



광주지역 최초로 사찰 및 불교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관이 열렸다.

증심사(주지 연광)는 10월 28일 경내 주차장 인근에 템플스테이 문화관 2개동 개관식을 갖고 지역민들을 위한 불교체험에 나섰다.〈사진〉 내년 1월까지 1개동을 추가로 완공할 예정이다.

문화관은 불교문화사업단, 광주시, 자체부담금 등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3개동(연경당, 혜경당, 자경당)을 마련하며, 12개의 방사와 다도 · 명상을 진행할 수 있는 2곳의 다목적실이 들어선다.

개관식에는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연광 스님,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송기석 국회의원,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연광 스님은 "누구에게나 안식처가 되고 다양한 사찰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용관은 향후 템플스테이와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시민선방과 명상체험, 사찰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증심사는 2008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돼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템플스테이 우수 운영사찰로 선정된 바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 도광사, 경로잔치 개최

지역 어르신 400여 명 초청



천안 도광사(주지 지엄)는 10월 28일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과 천안 무료급식소 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사진〉

올해로 7회째 맞은 경로잔치는 신안동 문화예술단이 준비한 창부타령, 밸리댄스, 색소폰 연주에 이어 지역 가수들의 축하공연, 어르신 장기자랑 및 노래자랑 등으로 꾸며졌다.

지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경로잔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도광사 사부대중과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광사는 경로잔치 외에도 매년 봄나들이 행사,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관람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강백 석전 박한영 스님, 선수행도 매진"

한일불교문화학회, 선운사서 추계 학술대회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는 10월 28일 선운사 세미나실서 '석전 박한영의 위상,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일본종교'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대강백이자 선사로 알려진 석전 박한영 스님과 당시 일본종교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는 10월 28일 선운사 세미나실서 '석전 박한영의 위상,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일본종교'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서는 1부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박한영의 사상과 신앙', 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박한영의 불교사관과 그 가치',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박한영과 한용운의 승려결혼관 비교' 연구발표 등이 진행됐다. 2부서는 이치노헤 쇼코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스님이 '데이터베이스 금강에 대하여', 즈시 미노루 야스쿠니반대 공동행동 일본위원회 사무국장이 '침략신사와 식민지종교지배'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재수 ·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안후상 고창고 교사 등이 참여했다.

김방룡 교수는 '박한영의 사상과 신앙'을 통해 석전 스님이 대강백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석림수필〉 13번째 '야호화(野狐話)'를 해석함에 교의(敎意)와 조의(祖意)가 있다는 내용을 조명했다. 의리에 의하여 접근하는 교의보다 격외의 조의가 더 깨달음에 접근하기 쉽다는 점을 말하고 있어 이는 간화선을 참구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견해라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석전 스님이 선사로서 임제종풍을 계승하지 않고, 하택의 선사상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석전 스님이 종밀의 〈신회행략(神會行略)〉을 들어 하택이 북종의 탄압에

'석전 위상과 일본종교' 주제
김방룡 · 오경후 · 김광식 교수 등
석전 스님 불교사상 집중조명

맞서 남종의 기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 역사적 사실을 짚었다. 석전 스님이 "하택의 종론은 중국을 휩쓸었고, 말엽에 미쳐서는 우리 한반도에 한 소리로 창화(唱和)하여 오늘날까지 쇠퇴하지 않으니 이는 이른바 원천이 깊으면 물줄기가 깊다는 것이다"고 말한 점을 강조했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박한영과 한용운의 승려결혼관 비교' 연구발표에서 "석전 스님과 만해 스님은 근대불교의 모순을 직시하고 불교대중화와 불교개혁을 위한 행보를 치열하게 걸어갔으며 이는 해방 후에도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전 스님은 만해의 결혼관에 대해 승려결혼 자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석전 스님이 1920년 6월 20일자 시대일보에 기고한 글 '승려식육취처론에 대하야'를 제시했다.

석전 스님은 이 글에서 '승려식육취처론'을 수용치 않았음을 밝히고 승려의 식육취처는 '만만불가'한 패악설이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신조'이면서 '교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석전 스님은 철저한 계율수호를 강조하면서도 승려결혼이라는 계율파괴를 주장한 만해와 친연한 행보를 이어간 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석전의 위대성, 강학의 대가, 큰스님 및 고승의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이제는 석전의 정체성, 교육 측면에서의 성과 등 다양한 관점서 석전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심학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일본의 식민사학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우리 불교사를 바로잡고, 후학양성과 복지국가 건설, 불교문화 융성에 혼신을 다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을추억 한 아름, 내소사 산사음악회

10월 29일, 경내 특설무대서 지역주민 행복 · 마을 화합 기원



가을색이 짙어가는 고색창연한 산사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과 꽃살무늬 문살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10월 2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2016 내소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우리 절 우리 마을 삶의 고향'을 주제로 내소사 대중스님들과 지역주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진 산사음악회는 내소사를 찾은 이들의 평안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는 알찬 무대로 꾸며졌다.

수령 1500년 당산나무와 전각을 배경으로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음악회는 남성 3인조 팝페라 그룹 '빅맨 싱어즈'가 무대에 올라 베사메무쵸, 무조건 등 흥겨운 노래로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이어 4인조 클래식 앙상블 '92.5MHz'는 애잔한 클래식 선율로 전인권의 '걱정말아요 그대', 산울림의 '청춘' 등을 연주했다. 또 4인조 통기타 그룹 '음악나무'는 '아름다운 것들' 등 70 · 80년대 주옥같은 포크송을 불러 중년 관객들에게 옛 추억을 전했다. 음유시인 정태춘 · 박은옥 부부는 '탁발승의 새벽 노래' '촛불' '떠나가는 배' 히트곡을 선보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산사음악회에 앞서 내소사 경내 곳곳에서는 부안 지역 먹거리와 특산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나눔장터와 단청그리기, 전통차 시음, 연꽃등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한편 진도 쌍계사(주지 법오)도 같은 날 대웅전 보수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통기타 가수로 대표되는 해바라기, 트로트 가수 진시몬 등이 출연해 대웅전 보수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황방사, 산신각 점안식 및 산사음악회

전주 황방사(주지 지호)는 10월 29일 전주 보문사 향산 스님을 비롯한 향산문도회 스님 20여 명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신각 점안식 및 제1회 작은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산신각 점안식은 향산 스님의 증명으로 전통방식에 따라 엄숙하고 정중하게 봉행됐으며 절 마당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점안식에 이어 진행된 작은 음악회는 범적사 대표 나은지 목포대 교수의 사회로 마이산 탑사 나눔봉사단의 퓨전난타공연과 탑사 진성 스님 · 혜인정사 진송 스님의 색소폰 연주, 무설스님의 북춤, 신도 노래자랑 등이 이어졌다.

지호 스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3년째 전주 덕진공원서 무료급식을 진행하는 등 나눔의 행복을 전하고 있다"며 "산신각 점안법회와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재능기부로 출연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